

300-102. 신문조서(具然欽 외 2명 1 치안유지법 위반)

■ 1930년 8월 29일 金明會 및 河宗煥의 체포에서부터 동년 10월 28일까지 具然欽을 포함한 3인의 신문조서와 이에 관련된 문건의 합철로서, 경성지방법원이 刑事第1審 訴訟記錄으로 작성한 문서 수록

-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具然欽: 48세, 원적 忠北 槐山郡 佛頂面 搭村里, 본적 京城府 慶雲洞, 주소 上海 法界 辣斐德路 泰興坊 9號

金明會: 25세, 본적 咸南 端川郡 波道面 松坪里, 주소 上海 佛祖界 甘世東路 集仁里 107號

河宗煥: 21세, 본적 慶南 東萊郡 鐵馬面 耳谷里, 주소 上海 佛祖界 甘世東路 集仁里 107號

- 이 3인에 대한 관계서류의 편철순서를 보면, 226건의 압수품 목록이 있고, 在上海 日本總領事館 警察署 司法警察官 警部代理 外務省巡查 後藤源太郎의 의견서와 具然欽의 체포보고서(1930년 9월 11일), 그리고 제1회 청취서(1930년 9월 11일)부터 제14회의 청취서(1930년 9월 30일)까지 216건의 증거물건 목록이 있다.

- 다음에 1930년 8월 29일자 金明會 및 河宗煥의 체포보고서, 金明會의 청취서 3회(9월 1, 4, 5일) 河宗煥의 청취서(8월 31일), 後藤巡查의 참고보고, 朝鮮語原文과 日語譯文으로 된 시위운동 詳報, 신원조사(金明會·河宗煥) 서류가 있다.

- 여기까지는 上海領事館 警察署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로는 국내의 기록인바 1930년 10월 3일 기소증지자 具然欽 등 신병인수, 구인장발부 집행의 촉탁전문, 10월 14일 피의자 사건이송 압송장, 구인장 정본 등이 있으며, 10월 20일 검사의 3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구류장이 있다. 구류장에는 嚴正獨居라 하여 서대문형무소에서는 독방에 수감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어 10월 24일 具然欽의 2차 신문조서, 10월 28일 金明會·河宗煥에 대한 2차 신문조서로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 이상으로 편철을 마감하고 있다. 청취서로 볼 때, 具然欽은 한학을 이수하고 舊 韓國政府 內部所屬 地方制度 調査委員, 內部主事, 滿洲日報 記者, 新思想研究會 組織, 東亞日報 地方部長, 時代日報 營業局長을 역임하고 朝鮮共產黨 조직 후 검거를 우려하여 1926년 10월 上海로 도주하였다. 범죄사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1. 1925년 4월 제1차로 조직된 공산당 간부 金在鳳 외 10명이 신의주에서 검거된 후 姜達永 등과 공모하여 1926년 3월 조선공산당을 재조직
2. 1927년 4월 11일 上海 法界 3·1 禮拜堂에서 한국독립에 필요한 민족적 혁명에 집중하여 李東寧 외 23인이 집행위원이 되어 韓國唯一獨立黨 上海促成會를 조직
3. 1927년 9월경 洪南杓·呂運亨·曹奉岩·鄭柏·玄鼎建과 공모하여 중국공산당 江蘇省黨部に 입당하고, 그 소속하에 法南區에 한인지부를 설치
4. 1929년 6월 17일 台灣始政記念日에 上海 法界 民國路 侵會堂에서 上海反帝同盟, 上海青年反帝同盟, 在中國本部 韓人青年同盟 第1區 上海支部, 中國本部 韓人青年同盟 上海支部, 韓國唯一獨立黨 上海促成會, 上海韓人女子俱樂部, 台灣青年團 등 7개 단체 회합 때 東方被壓迫民族反帝同盟籌備會를 조직
5. 1929년 11월 26일 留扈韓國獨立運動者同盟을 조직하고 총무부장에 취임
6. 1929년 11월경부터 1930년 4월까지 각종 단체를 영도하여 반제국주의의 문서선전, 군중대회, 시위운동을 실천



7. 1929년 12월 말경 조선학생사건 선전기관으로 上海 各團體聯合會를 조직하여 光州學生事件의 폭발을 계기로 군중대회를 개최, 중국, 대만, 인도, 하와이, 필리핀의 혁명가 대표를 초청하여 학생사건의 진상을 보고, 동정을 얻으려고 하였다.